

아동용 낙관성 척도 개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타당화

선영운(宣永雲)*

논문 요약

이 연구는 기존 아동용 낙관성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낙관성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제작한 다음, 초등교사 및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예비연구를 거쳐 서로 유사한 문항 혹은 문항 전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가려내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예상을 나타내는 문항 5개, 부정적인 예상을 나타내는 문항 5개, 허위문항 3개 등 총 13문항이 선정되었다. 측정은 아동이 4점 리커트 척도에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56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 표본 1($N=275$)에서는 .87, 표본 2($N=294$)에서는 .89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가 산출되었다. 구인타당도 검토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표본 1)과 확인적 요인분석(표본 2)을 실행한 결과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척도의 단일요인구조를 지지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낙관성과 방법효과(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로 구성된 모형이 방법효과를 가정하지 않은 단일요인모형 그리고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보다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본 척도가 기본적으로 낙관성의 단일요인을 측정하는데, 측정값에는 문항반응양식이 방법효과로 반영됨을 시사한다. 준거타당도 검토를 위해 본 척도와 희망, 안녕감, 우울, 대처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망, 안녕감, 접근 대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우울, 회피 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므로 신뢰할 만한 낙관성 측정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아동용 낙관성 척도는 학교 현장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낙관성 수준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아동용 낙관성 척도, 낙관성, 비관성, 초등학생, 방법효과

I. 서론

우리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나름의 예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예상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게 마련이다. 때로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정반대의 예상을 내놓곤 한다. 어떤 이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반면에 다른 어떤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견한다. 개인이 특정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볼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빚어지겠지만 상당 부분은 성격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성향을 ‘낙관성(optimism)’ 혹은 ‘기질적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이라 칭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예상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성격의 한 측면이다(Carver, 2014; Scheier & Carver, 1985). 여기서 예상의 대상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낙관성은 특정 영역보다는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Carver, 2014; Carver, Scheier, & Segerstrom, 2010).

여러 심리적 특성 가운데 낙관성은 특히 개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더 큰 행복과 안녕감을 느낀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로부터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예, 김정수, 조한익, 2010; Chen, Jing, Hayes, & Lee, 2013; Peterson, 2006). 낙관적인 사람은 또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도 덜 경험한다(예, 조혜윤, 손은정, 2008; Aspinwall, & Taylor, 1992; 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Vickers & Vogeltanz, 2000). 낙관성과의 유의한 연관은 심리적 건강에 한정되지 않는다. 낙관성은 신체적 고통, 면역력, 심혈관 기능, 암 등에 이르기까지 신체 기능이나 질병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냄으로써 육체적 건강의 예측변인으로 기능한다(Rasmussen, Scheier, & Greenhouse, 2009). 이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보다 두터운 사회적 자원을 구축한다(Brissette et al., 2002; MacLeod, & Conway, 2005).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낙관성이 정신 및 신체 건강, 사회적 관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낙관성은 개인의 행복과 안녕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낙관성과 개인의 안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의 여러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아동은 정서조절에 능숙하며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노영천, 김홍석, 2013). 또한 우수한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갖는다(김홍석, 노영천, 2013; 이태영, 노영천, 2014; 하요상, 2013). 이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아동은 비판적인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를 나타내고 학업 스트레스는 덜 경험한다(여태철, 2015; 하요상, 2013). 따라서 낙관적인 아동은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고(여태철, 2015),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노영천, 김홍석, 2012). 이처럼 아동의 낙관성은 심리 및 사회적 건강의 지표이자 학교 적응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기능한다.

낙관성 연구에서 낙관성에 대한 측정은 연구결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낙관성은 대부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Scheier 등(1994)이 고안한 삶의 지향성 검사 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이다. LOT-R은 허위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6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문항 수가 적어 비교적 쉽게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또한 이 척도는 Cronbach's α .80 수준의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측정결과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LOT-R은 현재 가장 선호되는 낙관성 측정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LOT-R은 엄연히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이므로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Ey 등(2005)은 아동을 대상으로 LOT-R을 사용할 경우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내 연구(여태철, 2015; 하요상, 2013; 하종덕, 송경애, 2004)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LOT-R을 번안하여 사용했을 때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가 .70 ~ .7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LOT-R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칫 왜곡된 연구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Ey 등(2005)은 아동용 낙관성 척도인 YLOT(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LOT-R을 기반으로 고안된 자기보고식척도로 총 12문항(허위문항 제외)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YLOT는 특히 Cronbach's α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써 LOT-R을 아동에게 적용할 때의 한계를 적절히 보완하였다. 그러나 YLOT 문항 가운데 두 문항(8번, 10번)은 낙관성 측정 문항으로서 제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먼저 8번 문항("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은 낙관성보다는 '행운에 대한 신념(belief in good luck)'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Darke와 Freedman(1997)이 개발한 행운 신념 척도에는 YLOT의 8번 문항과 거의 동일한 "나는 내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Darke와 Freedman(1997)에 따르면 운이 좋다는 믿음은 일반적인 낙관성과는 차이가 있다. 운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신적인 신념에 한정되는 데 반해 낙관성은 이유야 어떠하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구인 사이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함으로써 행운에 대한 믿음이 낙관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YLOT의

8번 문항이 낙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용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Ey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8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표본 1에서는 .42, 표본 2에서는 .32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 점도 낙관성 측정 문항으로서의 한계를 암시한다.

10번 문항은 “날마다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로 낙관적인 아동일수록 높은 점수로 응답할 것을 가정한다. 이 문항이 여타 문항들과 다른 점은 미래에 대한 예상이 일반적인 ‘좋은 일’보다는 ‘재미있는 일’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낙관성은 특정 영역보다는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이 문항은 낙관성의 기본 개념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재미있는 일은 좋은 일에 해당되지만 상황에 따라 그다지 반길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큰 고민이 있거나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재미있는 일은 그리 바랄만한 일이 못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낙관적인 사람이라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기보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10번 문항은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낙관성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Ey 등(2005)이 제시한 연구결과가 이를 암시한다. 표본 1에서 이 문항은 .78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반면에 표본 2에서는 .4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10번 문항이 안정화된 성격특성으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한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YLOT는 두 문항에 걸쳐 낙관성 측정도구로서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두 문항이라고는 하나 전체 문항수가 12문항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을 선불리 지나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번안하여 모든 문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김주용과 이지연(2008)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척도 역시 자기보고식척도로 총 10문항(허위문항 제외)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LOT-R이나 YLOT의 문항들과 비슷하며 4점 리커트 척도의 방식을 취한다. 이 척도도 YLOT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절차를 거쳤으며 Cronbach's α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만약 우리나라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김주용과 이지연의 척도가 현재로서 가장 타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척도에서도 앞서 다루었던 YLOT의 문항들과 비슷한 한계를 지닌 문항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6, 8, 11번 문항이 그렇다.

먼저 6번 문항은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이 교우관계에 한정된다. 앞서도 다루었듯이 낙관성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낙관성의 기본 개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 이는 일반적인 낙관성보다는 Deptula, Cohen, Phillipsen과 Ey(2006)가 제안한 ‘또래 낙관성(peer optimism)’에 더 어울리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문항의 응답은 낙관성이 아닌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의해서도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6번 문항은 교우관계라는 특

정 영역에 한해서는 아동의 예상 성향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낙관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문항은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미래로 여겨질 것임을 가정하는데, 여기에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아동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더 많은’ 친구가 그다지 선호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이미 충분히 많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이라면 친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관성이 높은 아동이라고 해서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문항에 높은 점수로 응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6번 문항은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낙관성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8번 문항(“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의 경우 낙관성이 어느 정도 포착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의해 응답이 결정될 여지가 작지 않다.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Magaletta & Oliver, 1999) 이 문항도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한이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11번 문항은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로 앞서 다루었던 YLOT의 8번 문항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항은 낙관성보다는 행운에 대한 신념을 포착하는 데 적합한 문항으로 낙관성 측정 문항으로 사용되는 데 무리가 있다. 이상의 6, 8, 11번 문항은 김주용과 이지연(2008)의 연구에서 타 문항들에 비해 다소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는데(각각 .52, .47, .56), 이는 이 문항들이 낙관성 측정 문항으로서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낙관성 척도들은 각각 아동의 낙관성 측정에 있어 간과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안고 있다. LOT-R은 애초에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Ey et al., 2005). 미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YLOT는 12문항 중 2문항이 낙관성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며 요인부하량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김주용과 이지연(2008)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는 10문항 중 3문항이 YLOT와 유사한 제한점을 갖는다. YLOT와 성향적 낙관성 척도 모두 전체 문항수가 많지 않으므로 2~3문항에 걸친 문제는 자칫 낙관성의 측정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에 무시하지 못할 왜곡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는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측정을 위해 기존 척도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개선한 아동용 낙관성 척도가 제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아동용 낙관성 척도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척도를 고안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낙관성에 대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삶의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대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초등 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낙관성 척도의 구성에 앞서 낙관성과 '비관성(pessimism)'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에 진행될 척도의 구인타당도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척도의 경험적 타당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인타당도 외에도 준거타당도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낙관성 척도에 대한 준거타당도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낙관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낙관성과 비관성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낙관성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낙관성과 비관성

낙관성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성향이라면 비관성은 반대로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비관성은 낙관성의 정반대의 측면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한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논쟁거리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비관성이 단순히 낙관성의 반대 측면인가 아니면 낙관성과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관성이 단순히 낙관성의 반대 측면이라면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 비관성과 낙관성은 한 개념의 양 극단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다. 즉 비관성은 낮은 수준의 낙관성과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낙관성 측정도구인 LOT(Scheier & Carver, 1985)와 LOT-R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이 척도들은 낙관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진 문항들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들도 포함한다. 여기서 비관적 문항의 점수는 낙관성과 다른 별개의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이 문항들은 단지 낙관성의 반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수를 역으로 매기면 낙관성 점수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애초에 낙관성과 비관성은 이러한 입장에서 제안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낙관성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차원의 양극을 이루는 것이 아닌 서로 독립된 차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낙관적 성향과 비관적 성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예상을 나타내는 문항이 낙관성의 반대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성이라는 별개의 구인을 포착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요인분석의 결과들을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으로 구분된 2요인모형이 1요인모형보다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Creed, Patton, & Bartrum, 2002; Robinson-Whelen, Kim, MacCallum, &

Kiecolt-Glaser, 1997). 또 다른 증거는 낙관성과 비관성 사이의 상관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요인을 이룬다면 서로 강한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상관의 정도가 약하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Creed et al., 2002;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Plomin et al., 1992). 마지막 증거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제3의 변인들과의 상관에서 서로 독립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Robinson-Whelen 등(1997)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비관성은 1년 뒤의 불안,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그러나 낙관성의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연구들이 낙관성과 비관성이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차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만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요인을 이룬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요인분석 결과가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1요인모형이 2요인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예, 김주용, 이지연, 2008; Lai, Cheung, Lee, & Yu, 1998; Mehrabian & Ljunggren, 1997). 이밖에도 낙관성과 비관성의 강한 상관이 꾸준히 보고됨으로써 단일요인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예컨대, 김주용과 이지연(2008)은 -.63, Scheier와 Caver(1985)는 -.64, Chang 등(1997)은 -.80에 이르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1요인모형의 적합도가 2요인모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에 대하여 낙관성의 단일요인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Vautier, Raufaste와 Cariou(2003), 그리고 Rauch, Schweizer와 Moosbrugger(2007)에 따르면 1요인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가지 요인이 공존해서가 아니다. 이들은 LOT-R과 같은 낙관성 척도가 긍정 진술과 부정 진술로 양분되어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들에 따르면 피검자의 낙관성 수준 외에 긍정 진술 문항과 부정 진술 문항 간의 반응양식 차이가 LOT-R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즉 LOT-R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낙관성과 비관성이라는 두 가지 실질적인 요인이 아니다. 실질적 요인은 낙관성뿐이며 단지 문항반응양식이라는 방법효과가 응답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관성이 아닌 방법효과로 인해 1요인모형보다 2요인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위와 같은 견해는 낙관성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Marsh(1996)에 의하면 긍정 진술 문항과 부정 진술 문항이 혼용된 심리평가척도에서 방법효과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인분석을 진행할 경우 단일요인구조임에도 방법효과에 의해 2요인모형을 지지하는 결과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척도도 LOT-R과 마찬가지로 단일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긍정 진술 문항과 부정 진술 문항을 모두 사용하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2요인모형이 1요인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방법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방법효과가 포함된 단일요인모형을 제안

하여 2요인모형과 적합도 비교를 시도했다(예, Horan, DiStefano, & Motl, 2003; Marsh, 1996; Tomas & Oliver, 1999). 그 결과 방법효과가 반영된 단일요인모형이 2요인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냄으로써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판성은 낙관성과 독립을 이루는 별개의 구인이라기보다 낙관성의 반대 측면이라는 입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론적으로도 비판성을 낙관성과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는 데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Kubzansky, Kubzansky, & Maselko, 2004; Rauch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낙관성 척도도 2요인구조보다는 단일요인구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절차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인모형과 2요인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모형 외에도 방법효과가 반영된 단일요인모형을 설정하여 함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방법효과는 선행연구(DiStefano & Motl, 2009; Horan, et al., 2003; Tomas & Oliver, 1999)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가정되어 모형 내 잠재변인으로 설정되었다(그림 2 참조).

2. 낙관성의 관련 변인

1) 희망

희망이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컫는다. 목표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낙관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희망의 구성요인을 들여다보면 낙관성과의 차이가 드러난다. 희망이론을 정교화한 Snyder(2002)에 따르면 희망은 목표 지향적인 사고로, 경로 사고(pathways thinking)와 작용주체 사고(agency thinking)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경로 사고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작용주체 사고란 그 방법들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희망은 목표 성취라는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목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동시에 강조된다는 점에서 낙관성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관성과 희망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인지적 특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낙관성과 희망의 관계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에서 .40에서 .50 수준의 유의한 상관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예, 조한익, 2009; 하요상, 2013; Ey et al., 2005).

2) 안녕감

안녕감이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로(Keyes & Waterman, 2003),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낙관성은 안녕감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로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Scheier와 Carver(1992)에 의하면, 낙관적인 사람은 보통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므로 평상시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쁜 결과를 예상하므로 불안, 분노,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기 쉽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반해 비관적인 사람은 노력을 한다 해도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믿으므로 목표 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쉽게 포기한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할 지라도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안녕감과 상당히 강한 상관을 나타낸다. 예컨대 Chen 등(2013), 그리고 유슬기와 방희정(2011) 모두 .67의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3) 우울

우울은 일종의 기분장애로 정상적인 슬픔과 기분 변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을 말한다(Ingram, 2012). 앞서 언급했듯이 낙관적인 사람은 평소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느끼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반해 비관적일수록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기 쉬우므로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낙관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예, 신현숙 외, 2005; Black & Reynolds, 2013; Wong & Lim, 2009). 이들 연구에서 낙관성과 우울은 -.40에서 -.60 사이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4) 대처

낙관성 연구자들은 낙관성이 어떻게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낙관성 수준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에 주목했다. 여기서 대처란 자신에게 부과된 스트레스나 역경을 다루기 위한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들을 일컫는다(Lazarus & Folkman, 1984). 여러 가지 대처 방식들은 크게 접근 대처(approach coping)와 회피 대처(avoidance coping)로 구분될 수 있다(Solberg Nes & Segerstrom, 2006). 접근 대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나타내며, 회피 대처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보다 그 문제에서 멀어짐으로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낙관성과 대처의 관계를 다룬 일련의 연구들

은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접근 대처를 사용하는 반면에 비관적일수록 회피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Solberg Nes & Segerstrom, 2006).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즉 접근 대처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비관적인 사람은 어차피 시도해보아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여기므로 회피 대처를 취하기 쉽다. 이에 따라 낙관성은 접근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데 반해 회피 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게 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절차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표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다음에 이어진다.

<표 1> 연구 절차 및 연구 참여자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	내용
예비문항 제작	· 본 연구자(교육학 박사) · 초등교사 1인(상담심리전공 석사)	예비문항 제작
	초등교사 3인(상담심리전공 석사)	문항 내용이 초등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
	· 교육학 박사 1인(검사지 개발 경험) · 대학교수 1인(낙관성 강의)	내용 타당도 전문가 검토
문항선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219명	문항 이해도 확인 설문 실시(1개교)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275명	· 예비설문 실시 (2개교) · 중복 문항,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문항 제거 · 탐색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검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294명	· 본 설문 실시 (7개교) · 확인적 요인분석 ·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

1) 예비문항 제작

예비문항 제작을 위해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초등교사 1인이 보조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문항제작에 앞서 보조연구자에게 낙관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여러 질문을 통해 낙관

성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낙관성 척도들의 문항을 살펴 보게 한 다음 낙관성 포착에 한계를 가지는 문항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종 문항수를 10문항가량으로 잠정 결정하고 보조연구자와 토의를 거쳐 예비문항 14개를 제작하였다(허위문항 제외). 문항수가 일반적인 자기보고식 척도에 비해 다소 적은 까닭은 아동의 낙관성이 1요인구조를 이룰 것으로 가정되므로(이론적 배경 참조) 10문항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경우 문항 수가 많으면 응답에 부담이 되어 측정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문항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모든 문항은 낙관성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일반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척도들이 지닌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한정되는 예상은 문항 내용 구성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기존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문항 중 절반은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문장으로, 나머지는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 내용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초등교사 3인에게 문항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중 한 명은 검사지 개발 및 타당화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이며, 다른 한 명은 낙관성에 관한 주제로 십 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교수이다.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친 후, A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한 곳의 4, 5, 6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 =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5 = 문장의 의미가 잘 이해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검사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가 4.3점 이상을 나타냄에 따라 제작된 예비문항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문항 선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 중에서 서로 유사한 문항 혹은 문항 전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가려내어 최종문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의 4, 5, 6학년 학생 275명(남 139, 여 136)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진행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17개의 예비문항에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문항 간 상관 그리고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였다. 먼저 문항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검토한 다음,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 하나를 제거하였다(이하 표2 참조). 아울러 문항-총점 간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고 내적일관성계수를 떨어뜨리는 3문항도 제거되었다. 이로써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문항 5개,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문항 5개, 허위문항 3개 등 총 13문항을 최종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문항을

대상으로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피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아동용 낙관성 척도 문항

문항 내용	문항-총점	제거시
	상관	Cronbach's α
2.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른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61	.881
4.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이 잘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a	.55	.883
5. 나는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다. ^a	.66	.879
6.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	.64	.879
7.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될 것이다.	.63	.880
8.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나는 보통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	.60	.881
10. 앞으로 나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59	.882
11. 일이 잘 되다가도, 나쁜 일이 생겨서 결국에는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a	.63	.879
12. 내 뜻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a	.61	.881
13.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a	.57	.882
허위문항		
1.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한다.		
3.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		
9.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		
제거문항		
나쁜 예감은 꼭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다. ^c	.39	.891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 같지 않다. ^c	.42	.891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일은 곧 좋게 해결될 것이다. ^b	.66	.878
나는 웬만하면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 ^c	.51	.885

^a역채점 문항.

^b 7번 문항과 다소 높은 상관(.54)을 보이고 문항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제거하였음.

^c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고 내적일관성계수를 떨어뜨려 제거하였음.

3) 구인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검토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A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일곱 곳의 4, 5, 6학년 294명(남 146, 여 148)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년별 참여 인원은 4학년 106명, 5학년 95명, 6학년 93명이었다. 총 12학급에서 담임교사의 관리 아래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시간은 대체로 30분가량 소요되었다.

2. 측정 도구

1) 낙관성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의 예상을 나타내는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이는 3개의 하위문항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표 2). 비판적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어 낙관적 문항들과 함께 합산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표본 1($N=275$)에서 .87, 표본 2($N=294$)에서는 .89로 나타났다.

2) 희망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조한익(2009)이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희망경로(5문항)와 희망주도(6문항)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희망경로는 아동의 경로 사고를, 희망주도는 작용주체 사고를 측정한다. 조한익(2009)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는 희망경로 .80, 희망주도 .86, 전체 .90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희망경로 .90, 희망주도 .92, 전체 .94로 나타났다.

3) 안녕감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를 이희은(2012)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K-WBSA는 Keyes(2005)의 안녕감 척도를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최근 한 달간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6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느끼지 않음, 6 = 매일 느낌)로 평정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이 안녕감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3문항), 심리적 안녕감(4문항), 사회적 안녕감(5문항)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이희은(2012)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는 정서적 안녕감 .93, 심리적 안녕감 .85, 사회적 안녕감 .88, 전체 .94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녕감 .90, 심리적 안녕감 .81, 사회적 안녕감 .85, 전체 .92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의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각 문항은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최근 자신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문장의 선택에 따라 각 문항에서 0점, 1점, 2점 가운데 하나를 얻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9번 문항을 사용에서 배제하였는데, 이 문항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예, “나는 자살하고 싶다.”) 연구 참여 아동에게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9번 문항을 제외해도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Weiss et al., 1991), 이 문항의 배제는 우울의 측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는 본 연구에서 .87로 나타났다.

5) 대처

대처의 측정을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적극적, 공격적, 소극/회피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등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각 하위척도는 모두 5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18번 문항 제외)만을 사용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접근 대처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회피 대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18번 문항을 사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문항-총점 간에 부적 상관을 이루어 내적일관성계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아(2001)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적극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는 각각 .87과 .64였다. 본 연구에서는 18번 문항을 포함시킬 경우 각각 .83과 .46으로, 소극/회피적 대처척도의 내적일관성계수가 상당히 낮게 산출되었다. 18번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는 .57로 이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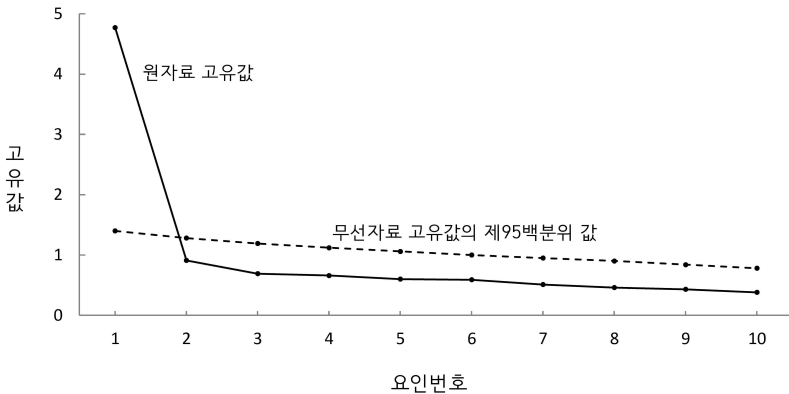
3. 자료 분석

먼저 예비설문에서 수집된 자료(표본 1)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표본 2)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기술통계량과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다음, 척도의 구인타당도 추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타당도 검토를 위해 준거변인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Mplus 6.12가, 나머지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의 적합도지수를 사용하였다. TLI > .90, CFI > .90, RMSEA < .10, SRMR < .08이면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보았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이밖에 모형 간 비교를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도 함께 검토하였다. AIC가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된다(Kline, 2011). 결국 값은 SPSS를 통해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피기 위해 KMO(Kaiser-Meyer-Okin) 표본적합도를 산출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표본적합도는 .916, 구형성 검증의 경우 $\chi^2(45, N=275) = 979.039, p < .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평행분석 및 스크리 도표

요인의 수는 평행분석과 스크리 검사를 통해 검토하였다(장승민, 2015). 평행분석 결과 원자료의 고유값 중에서 무선자료에서 얻은 고유값의 제95백분위 값보다 큰 것은 하나로 나타나(그림 1), 유의한 요인의 수가 하나로 해석되었다. 스크리 검사 결과에서도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부터 1이하로 평준화됨으로써 단일요인구조가 지지되었다. 평행분석과 스크리 검사 모두 단일요인구조를 지지하지만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구조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도 많으므로, 1요인모형과 2요인모형의 요인분석을 각각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요인의 추출과 회전 방법으로는 각각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요인행렬은 <표 3>과 같다. 요인행렬 가운데 먼저 5번과 13번 문항의 2요인구조 요인부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이 문항들은 2요인모형의 입장에서 비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됨에도 불구하고 낙관성 요인에 더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결과는 2요인모형의 기본 가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요인 간의 상관성이 .7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두 요인을 상호 독립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한편 1요인모형에서는 모든 문항이 .55에서 .70 사이의 양호한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평행분석 및 스크리 검사 결과, 1요인구조 및 2요인구조의 요인행렬 모두 2요인모형보다는 1요인모형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아동용 낙관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75$)

문항번호	진술형식	1요인구조 요인부하량	2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상관
			요인 1	요인 2	
2		.70	.87	-.18	
6		.68	.67	.04	
8	긍정 진술	.66	.66	.03	
10		.63	.57	.09	
7		.69	.56	.16	
5		.68	.47	.25	
13		.63	.43	.23	.73
11	부정 진술	.64	-.01	.77	
4		.55	.03	.60	
12		.64	.21	.51	
	고유값	4.77	4.77	.91	
	설명분산(%)	47.72	47.72	9.12	
	Cronbach's α	.87	.85	.72	

2. 문항별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각 문항의 기술통계량과 문항 간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상관의 범위는 .22에서 .62 사이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62에서 .82 사이의 범위를 보였다. 한편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3 미만으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의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Mardia의 다변량 정규성 검사(Korkmaz, Goksuluk, & Zararsiz, 2014)를 실행한 결과,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의 조건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dia의 다변량 첨도 통계치 = 167.37, $p < .001$).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자료가 비정규분포를 나타낼 때 널리 사용되는 모수 추정방법인 로버스트 최대우도(robust maximum likelihood, Mplus에서는 MLR)를 사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2).

<표 4> 아동용 낙관성 척도의 문항별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N=294)

문항	2	4	5	6	7	8	10	11	12	13	M	SD	왜도	첨도
2	-										3.17	.78	-.83	.48
4	.22	-									2.83	.86	-.41	-.42
5	.44	.44	-								3.21	.79	-.76	.06
6	.40	.30	.34	-							3.55	.64	-1.53	2.76
7	.44	.36	.48	.50	-						3.11	.74	-.58	.19
8	.47	.30	.52	.41	.39	-					3.06	.74	-.50	.06
10	.55	.35	.48	.45	.45	.51	-				3.21	.72	-.68	.36
11	.30	.48	.49	.31	.44	.34	.42	-			3.09	.84	-.65	-.22
12	.40	.39	.54	.46	.47	.46	.45	.56	-		3.05	.80	-.57	-.10
13	.43	.48	.61	.48	.51	.48	.56	.59	.62	-	3.27	.79	-.86	.13
총점	.65	.62	.76	.64	.71	.68	.73	.71	.76	.82	31.55	5.46	-.74	.80

주.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4, 5, 11, 12, 13번 문항은 역채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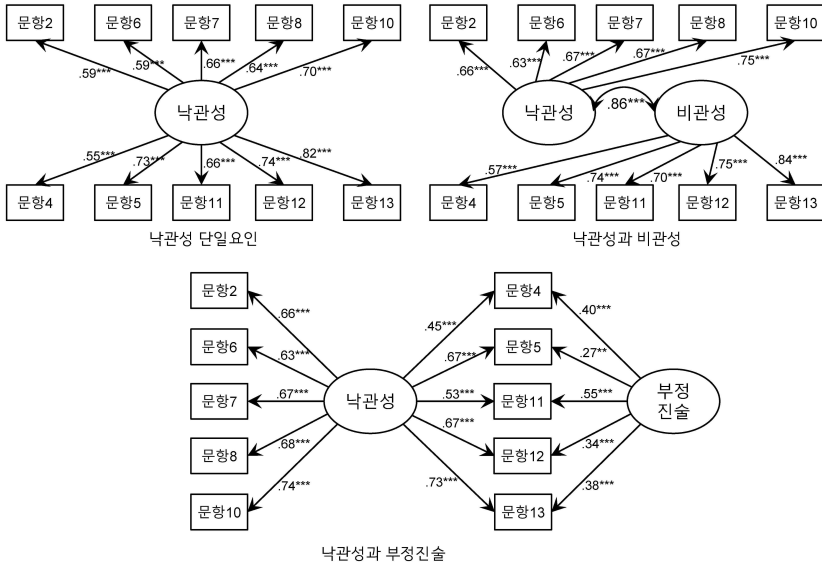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지수를 나타내었다(표 5). 또한 각 모형의 모든 측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2). 각 모형의 적합도를 서로 비교해보면 ‘낙관성과 부정진술’ 모형이 모든 적합도지수에 걸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이 그 뒤를 이었고, ‘낙관성 단일요인’ 모형은 셋 중 가장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낙관성의 단일요인 외에 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이 방법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된 ‘낙관성과 부정진술’ 모형이 자료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5> 요인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SRMR	AIC
낙관성 단일요인	86.838	35	.000	.918	.937	.071	.046	5702.662
낙관성과 비관성	55.601	34	.000	.965	.974	.046	.036	5664.477
낙관성과 부정진술	46.311	30	.029	.970	.980	.043	.031	5659.252

한편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에서 요인 간 상관이 .86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2). 이러한 강한 상관은 구분된 두 요인이 동일한 요인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2요인구조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림 2] 요인모형의 표준화계수. ** $p < .01$. *** $p < .001$.

4.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희망, 안녕감, 우울, 대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측정된 낙관성은 희망과 .67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안녕감과는 .60의 상관을 보였다. 한편 우울과는 -.67의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회피대처와는 -.40의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대처와는 .56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희망 및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아동용 낙관성 척도와 준거변인 간의 상관 ($N = 29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M	SD
1. 낙관성	-										31.55	5.46
2. 희망 전체	.67***	-									42.61	7.64
3. 경로사고	.59***	.92***	-								18.60	3.88
4. 작용주체사고	.65***	.94***	.73***	-							24.02	4.34
5. 안녕감 전체	.60***	.68***	.60***	.66***	-						52.72	12.23
6. 정서적 안녕	.49***	.54***	.45***	.55***	.83***	-					14.66	3.25
7. 심리적 안녕	.54***	.66***	.60***	.63***	.90***	.64***	-				17.00	4.59
8. 사회적 안녕	.57***	.62***	.55***	.60***	.94***	.70***	.75***	-			21.08	5.76
9. 우울	-.67***	-.58***	-.52***	-.56***	-.67***	-.64***	-.55***	-.63***	-		36.08	6.73
10. 접근대처	.56***	.73***	-.72***	.65***	.63***	.53***	.62***	.54***	-.45***	-	15.20	2.73
11. 회피대처	-.40***	-.25***	-.16**	-.29***	-.29***	-.34***	-.20**	-.26***	.40***	-.16**	8.00	2.48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아동용 낙관성 척도들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척도를 제안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설문과 본 설문을 진행하였고,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 등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다음,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도분석 결과 .87(표본 1)과 .89(표본 2)의 높은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가 산출되었다. 이는 LOT-R을 번안하여 아동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난 내적일관성계수(.70~.73)보다 상당히 높은 값이다. 또한 기존 아동용 낙관성 척도 개발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관성계수들보다 다소 높다. Ey 등(2005) 그리고 김주용과 이지연(2008)이 보고한 내적일관성계수는 각각 .83과 .82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안정된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예비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표본 1)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구조가 2요인구조보다 자료에 더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행분석 결과 원자료의 고유값 중에서 무선자료에서 얻은 고유값의 제95백분위 값보다 큰 것은 하나로 나타났고, 스크리 검사 결과도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부터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유의한 요인의 수가 하나임을 시사했다. 또한 단일요인구조에서 모든 요인부하량이 .55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단일요인구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2요인구조의 요인행렬에서는 비관성 문항으로 가정되는 다섯 문항 가운데 두 문항이 낙관성 요인에 더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는데, 이는 2요인모형의 기본 가정에 어긋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7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2요인모형보다는 단일요인모형의 입장에 더 무게를 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에 걸쳐 2요인모형보다 단일요인모형이 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낙관성의 단일요인구조를 주장한 Mehrabian과 Ljunggren(1997)의 연구와 일관성을 갖는다.

본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표본 2)를 사용하여 진행한 확인적 요인분석도 단일요인구조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단순히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이 '낙관성의 단일요인' 모형보다 더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 점으로만 본다면 2요인모형이 단일요인모형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2요인모형은 모형 내의 요인 간 상관관계가 .86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요인구조의 타당성에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강한 상관관계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을 이루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1요인모형의 적합도가 2요인모형에 뒤지

기는 하나 적합도지수 전반에 걸쳐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므로 자료를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앞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아동용 낙관성 척도의 단일요인구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과 비관성 간에 높은 상관을 증거로 낙관성의 단일요인구조를 주장한 Mehrabian과 Ljunggren(1997), Scheier와 Caver(1985), 김주용과 이지연(2008)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각각 -.82, -.64, -.63의 강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본 연구결과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상관이 -.8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Chang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을 갖는다.

한편 '낙관성의 단일요인'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가 나타나는 것은 비관성이 제2의 요인으로 공존해서라기보다 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이 방법효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낙관성과 부정진술' 모형이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모형보다 적합도지수 전반에 걸쳐 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척도는 기본적으로 낙관성이라는 단일요인을 포착하는데, 측정 과정에서 아동의 낙관성뿐만 아니라 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에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LOT-R의 응답에 낙관성 외에 비관성이라는 실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문항 반응양식이 방법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Vautier 등(2003)과 Rauch 등(2007)의 주장과 일관된다. 또한 이 결과는 긍정 진술 문항과 부정 진술 문항이 혼용된 심리평가척도에서 일반적으로 문항반응양식이 방법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Marsh(1996)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가지 요인이 아닌 단일요인으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아동의 낙관성 외에도 부정 진술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이 방법효과로서 낙관성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척도를 구성하는 긍정 진술 문항과 부정 진술 문항 모두 낙관성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나, 부정 진술 문항을 통해 측정된 값은 문항반응양식이라는 방법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변인들과 본 척도 사이의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낙관성 척도가 양호한 준거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낙관성이 희망, 안녕감, 접근 대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우울, 회피 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점은 아동의 낙관성이 심리적 건강과 적응적 행동양식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상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 척도를 통해 측정된 낙관성은 희망과 .67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희망은 목표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낙관성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희망은 목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함께 강조된다는 점에서 낙관성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67의 상관은

낙관성과 희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적절히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낙관성과 희망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예, 조한익, 2009; 하요상, 2013; Ey et al., 2005)과 일관성을 갖는다.

낙관성과 안녕감 사이의 상관은 .56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이 안녕감과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예, 유슬기, 방희정, 2011; Chen et al., 2013)과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낙관성이 개인의 안녕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작용한다는 낙관성 연구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한편 낙관성은 우울과는 -.67의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낙관성과 우울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예, 신현숙 외, 2005; Black & Reynolds, 2013; Wong & Lim, 2009).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인 아동은 평소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느끼므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데 반해 비관적인 아동은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기 쉬우므로 우울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낙관성이 우울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관성은 대처방식 가운데 접근 대처와는 .56의 정적 상관을, 회피 대처와는 -.40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낙관적인 사람은 대체로 접근 대처를, 비관적인 사람은 회피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선행연구와 일관성을 갖는 결과이다(Solberg Nes & Segerstrom, 2006의 메타분석 참조).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므로 접근 대처를 사용하려 하는 데 반해 비관적인 사람은 어차피 시도해보아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여기므로 회피 대처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아동 낙관성 측정방법에 내재된 제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척도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므로 신뢰할 만한 낙관성 측정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항수가 많지 않아 아동들이 큰 부담 없이 전체 문항에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낙관성 척도는 학교 현장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낙관성 수준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 및 사회적 건강, 학교 적응 등에 대한 정도를 가늠하거나 예측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동의 낙관성 수준은 심리 및 사회적 건강, 학교 적응 등의 지표이자 그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기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표집 대상이 특정 지역 초등학생 4, 5, 6학년에 한정되므로 타 지역 및 다른 학년의 아동에까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반화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령의 표집범위를 더욱 넓혀 본 연구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 검토가 내적일관성계수 추정에 한정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다각화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추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준거타당도 검토를 위한 상관분석이 희망, 안녕감, 우울, 대처 등의 변인에 한정되었다. 이들 변인 외에도 아동의 낙관성은 다양한 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정서조절능력(노영천, 김홍석, 2013), 사회성 및 또래관계(김홍석, 노영천, 2013; 이태영, 노영천, 2014; 하요상, 2013), 학업 성취 및 학교 적응(여태철, 2015; 하요상, 2013) 등이 그렇다. 따라서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이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수, 조한익(2010).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이점발견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97-820.
- 김주용, 이지연(2008).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9(3), 83-106.
- 김홍석, 노영천(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친구 및 교사 지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817-2832.
- 노영천, 김홍석(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625-2640.
- 노영천, 김홍석(2013). 초등학생의 낙관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7), 23-44.
- 민하영, 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79-97.
- 여태철(2015).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자기결정성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25-42.
- 유슬기, 방희정(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169-185.
- 이태영, 노영천(2014). 초등학생의 낙관성과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3(3), 297-312.
-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 이희은(201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장승민(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34-956.
- 조한익(2009). 초등학교 고학년용 희망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3(2),

323-342.

- 조혜윤, 손은정(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하요상(2013). 긍정심리학의 구성요소와 초등학생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14(4), 2307-2325.
- 하종덕, 송경애(2004). 과학영재의 스트레스, 완벽성, 낙관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4(1), 47-64.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755-765.
- Black, J., & Reynolds, W. M. (2013).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optimism: Testing for mediation and moder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426-431.
- Bri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arver, C. S. (2014). Optimism. In A. C. Michalos (Ed.),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pp. 4500-4503). Springer.
-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 (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79-889.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 Chen, F. F., Jing, Y., Hayes, A., & Lee, J. M. (2013). Two concepts or two approaches? A bi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3), 1033-1068.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Darke, P. R., & Freedman, J. L. (1997). The belief in good luck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86-511.

- Deptula, D. P., Cohen, R., Phillipsen, L. C., & Ey, S. (2006). Expecting the best: The relation between peer optimism and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 130-141.
- DiStefano, C., & Motl, R. W. (2009). Self-esteem and method effects associated with negatively worded items: Investigating factorial invariance by sex.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1), 134-146.
- Ey, S., Hadley, W., Allen, D. N., Palmer, S., Klosky, J., Deptula, D., ... & Cohen, R.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548-558.
- Horan, P. M., DiStefano, C., & Motl, R. W. (2003). Wording effects in self-esteem scales: Methodological artifact or response sty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3), 435-45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Ingram, R. (2012). Depression.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1. A-D* (2nd ed., pp. 682-68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eyes, C. L. M.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 Family Health, 4*(1), 3-11.
- Keyes, C. L. M., & Waterman, M. B. (2003). Dimensions of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adulthood. In M. H. Bornstein, L. Davidson, C. L. M. Keyes, & K. A. Moore (Eds.), *Well-being: Positive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pp. 477-4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rkmaz, S., Goksuluk, D., & Zararsiz, G. (2014). MVN: an R package for assessing multivariate normality. *The R Journal, 6*(2), 151-162.
- Kubzansky, L. D., Kubzansky, P. E., & Maselko, J. (2004). Optimism and pessimism in the context of health: Bipolar opposites or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943-956.
- Lai, J. C., Cheung, H., Lee, W. M., & Yu, H. (1998). The utility of 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to measure optimism among Hong Kong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3*(1), 45-5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cLeod, A. K., & Conway, C. (2005). Well-being and the anticipation of future positive experiences: The role of income, social networks, and planning ability. *Cognition and Emotion, 19*(3), 357-374.
- Magaletta, P. R., & Oliver, J. M. (1999).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Their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5), 539-551.
- Marsh, H. W. (1996). Positive and negative global self-esteem: A substantively meaningful distinction or arti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810.
- Marshall, G. N., Wortman, C. B.,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Jr, R. R. (1992).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67-1074.
- Mehrabian, A., & Ljunggren, E. (1997). Dimensionality and content of optimism-pessimism analyzed in terms of the PAD temperament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5), 729-737.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CA: Muthén & Muthén.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omin, R., Scheier, M. F., Bergeman, C. S., Pedersen, N. L., Nesselroade, J. R., & McClearn, G. E. (1992). Optimism, pessimism and mental health: A twin/adoption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8), 921-930.
- Rasmussen, H. N., Scheier, M. F., & Greenhouse, J. B. (2009). Optimism and physical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7*, 239-256.
- Rauch, W. A., Schweizer, K., & Moosbrugger, H. (2007). Method effects due to social desirability as a parsimonious explanation of the deviation from unidimensionality in LOT-R sco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97-1607.
- Robinson-Whelen, S., Kim, C., MacCallum, R. C., & Kiecolt-Glaser, J. K. (1997).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in older adults: Is it more important to be optimistic or not to be pessimist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45-13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olberg Nes, L., & Segerstrom, S. C. (2006). Dispositional optimism and coping: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35-251.
- Tomas, J. M., & Oliver, A. (1999). Rosenberg's self-esteem scale: Two factors or method effec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84-98.
- Vautier, S., Raufaste, E., & Cariou, M. (2003). Dimensionality of 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and the status of filler i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8(6), 390-400.
- Vickers, K. S., & Vogeltanz, N. D. (2000). Dispositional optimism as a predictor of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2), 259-272.
- Weiss, B., Weisz, J. R., Politano, M., Carey, M., Nelson, W. M., & Finch, A. J. (1991).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38-45.
- Wong, S. S., & Lim, T. (2009). Hope versus optimism in Singaporean adolescents: Contributions to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5), 648-652.

* 논문접수 2017년 2월 3일 / 1차 심사 2017년 3월 10일 / 2차 심사 2017년 5월 31일 / 게재승인 2017년 6월 9일

* 선영은: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아동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월곡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sundocr@naver.com

Abstract

Development of the Korean Children's Optimism Scale: Validation for Fourth to Sixth Grade Students

Seon, Youngw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Children's Optimism Scale (KCOS)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irst,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optimism and their content validity was confirmed by experts. In addition, through the preliminary study, redundant or ambiguous items were eliminated. Accordingly, a total of 13 items (including three filler items) were selected as the items constituting the KCO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569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fourth to sixth grade. Cronbach's alpha measure for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COS was .87 in Sample 1 ($N= 275$) and .89 in Sample 2 ($N= 294$).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ample 1)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ample 2) supported one factor structure of this scale.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odel of optimism and method effect (response style to negatively worded items) showed better fit than the single factor model without method effects and the two factor model of optimism and pessimism. This result suggests that this scale basically measures a single factor of optimism although the measures may be affected by children's response style to negatively worded item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this sca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 well-being, approach coping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voidance cop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KCOS has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in measuring children's optimism.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children's optimism scale, optimism, pessimism, elementary students, method effect

* Teacher, Wolgok Elementary School, Gwangju